

아카루트 2021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

‘주변국’의 세계상 —일본·한국·베트남

「周辺國」の世界像—日本・朝鮮・ベトナム

저자 | 미타니 히로시(三谷博)

이성시(李成市)

모모키 시로(桃木至朗)

번역 | 조호연 (오사카대 인문학연구과)

▶ 이 번역논문은 [2021년 아카루트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DBpia × 아카루트

'주변국'의 세계상—일본·한국·베트남 (「周辺國」の世界像—日本・朝鮮・ベトナム)¹⁾

미타니 히로시(三谷博)·이성시(李成市)·모모키 시로(桃木至朗)
번역: 조호연 (오사카대 인문학연구과)

I '주변국'의 공통성—'중화'의 이용·저항·복제

많은 독자가 "'주변국'의 세계상"이라는 제목에 위화감을 느낄 수도, 한국²⁾과 일본, 베트남을 함께 논하는 것이 무모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다. 또 이는 중심으로서 '중국'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기에, '중국' 중심 사관(史觀)을 재확인하거나 강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문명과 세계종교 혹은 세계제국이 그려낸 세계상, 반대로 국가를 구성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가진 세계상과 함께, 세계 곳곳에는 이와 같은 양극단의 중간에서 독자적인 세계상을 모색해온 사람들이 있었다. 대문명의 '주변'에 자리하여 '위'를 바라보면서, '소제국(小帝國)'이나 '프로토(proto)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했던 움직임은 위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 패턴 중 하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 전형적인 사례로서 동아시아 제국(諸國)을 다룬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의 자리에 서 있었기에, 그 세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나 베트남과 비교하고자 하는 문제설정은 유익할 것이다.

이 논문은 대체로 19세기 중엽까지의 시기, 이른바 '근대' 이전의 한국·일본·베트남을 다룬다.³⁾ 나라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시대는 다르지만, 서양이 과학과 결합한 기술을 바탕

1) 三谷博·李成市·桃木至朗, 「「周辺國」の世界像—日本・朝鮮・ベトナム」, 三谷博 『일본사 속의 '보편'(日本史のなかの「普遍」)』 도쿄대학출판회(東京大學出版會), 2020, pp. 103 - 136(원저 「「周辺國」の世界像—日本・朝鮮・ベトナム」, 아키타 시게루(秋田茂)·나가하라 요코(永原陽子)·하네다 마사시(羽田正)·미나미즈카 신고(南塚信吾)·미야케 아키마사(三宅明正)·모모키 시로 편 『'세계사'의 세계사(「世界史」の世界史)』 미네르바 서방(ミネルヴァ書房), 2016).

2) 역자주 :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고유명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취한다. 먼저 제목을 포함해 조선이나 조선반도는 각각 한국과 한반도로 번역하였다. 다만, 조선 왕조를 의미할 때에는 그대로 조선으로 번역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인명, 지명, 서명 등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한국어 독음을 우선으로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 독음으로 읽되, 서명은 한국어 독음으로 읽는다. 관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본어 독음으로 읽으나, 공의(公儀)만은 한국어로 읽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인명과 지명, 왕조명은 베트남 독음으로 읽되, 서명과 함께 전설상의 인물, 개념(과 개념으로서 지명) 등은 한국어 독음으로 읽었다. 베트남어를 읽을 때, 하노이 등 널리 알려진 것을 제외하고는, 음절 별로 끊어서 띄어쓰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은 모두 번체자(繁體字)로 고쳐서 적었다.

3) 이 논문은 이성시, 모모키 시로 두 분이 집필한 한국사와 베트남사의 내용을 함께 게재했다. 주변이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비교함으로써, 일본사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으로 세계화를 재개하고 태평양에 인접한 국가들이 그러한 움직임에 말려들게 되기 이전까지, 이들 나라가 품었던 세계상에는 공통된 성질이 있었다. 바로 요사이 연구자들이 이따금 사용해왔던 '일본형 화이의식(華夷意識)', '조선 소중화사상(小中華思想)', '베트남형 화이의식'이다.

이들은 실로 흡사하다. 역사연구자가 좀처럼 자신이 전문으로 하는 지역 이외의 연구를 참조하지 않기에 그다지 의식되어 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암묵리에 공통된 성질의 존재를 지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를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중화' 왕조를 중심으로 설정하면서도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에 저항하고, 그리고 복사하는 습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중화 제국의 수도와의 지리적 거리에 따라 짙고 옅음의 차이가 있었다. 한 해에 수차례에 걸쳐 북경(北京)으로 사절을 보내던 조선은 항상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해(大海) 속 섬나라 일본은 근세 시기에는 중국과 국교를 맺지 않고 단지 무역만을 하며, 의식적으로는 중국적 질서상(秩序像)을 모방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위치와 태도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었다.

먼저 이용한 것은 무역이었다. 근대 이전에 이 지역에서 고도의 소비물자를 대량으로, 그리고 값싸게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뿐이었다. 주변 지역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욕망은 매우 강했으므로, 일본 이외의 나라는 조공(朝貢)이라는 중화 제국의 관례를 따랐고, 종종 번속(藩屬)으로서 책봉까지 받아들였다. 한편, 중화 왕조는 초창기에 여러 차례에 걸쳐 주변으로의 영토확장을 감행했다. 군사적 정복 이후, 주변국이 자치를 요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화가 요구하는 외교 관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왕권이 자국에 인접한 왕권이나 혹은 국내의 정치적 경쟁자와의 우위를 다투기 위해서는 중화 제국과의 관계를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주변국은 중국을 이용하지만은 않았다. 동시에 저항도 했다. 상대가 강대했으므로 대다수는 '면종복배(面從腹背)'의 형태를 띠었다. 예를 들어 조선은 번속으로서 청나라를 섬기면서도, 궁중에서는 몰래 명나라의 황제들을 제사 지냈다. 베트남의 여러 왕조는 중국과의 대등함을 표현하는 '대월(大越)' 등의 국호를 사용하고 군주는 황제의 이름을 칭했다. 중국으로부터 하사받은 '안남(安南)' 등의 이름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일본은 정치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있었기에, 이용의 빈도 또한 적었으며 저항의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세계의 질서상은 중화 제국의 그것을 복제하고 있었다. 예컨대 자신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조선이나 류큐(琉球)에서 온 사절을 '조공'이라고 간주했다. 일본 이외의 나라 역시 그러했는데, 조선은 일본의 쓰시마(對馬)를 '조공' 오는 '도주(島主)'로 간주하고 다이묘(大名) 소 씨(宗氏)에게 관직을 수여했다. 베트남 또한 캄보디아에 종주(宗主)로서 임하여, 마찬가지로 행동하던 태국 왕권과 패권을 다투었다. 주변국은 중화 제국이 만든 세계질서의 문법(文法) 이외의 질서상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근세'의 중국 주변 지역에서는 중국의 이용, 저항, 복제라는 공통된 국면의 역학이 작용하고 있었다. 물론 중국의 수도와의 지리적 거리가 나라에 따라 달랐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국내와 주위의 사정은 달랐으므로 각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에는 차이가 있다. 다음 장에서부터는 중심으로부터 가장 먼 나라, 일본을 시작으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일본

1 '일본'의 국제관계

한 사회의 세계상은 그 자기상(自己像)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 '자기' 자체도 역사 속에서 변화하고, 그 주체나 영역의 변화, 분열과 재편성, 여기에 지적 소양의 변화에 따라서 세계상도 변화한다. 예로부터 일본에는 이른바 '삼국(三國)'관, 불교의 우주관에 기초한 천축(天竺)·진단(震旦)·본조(本朝)라는 세 지역으로 구성된 세계상이 있었다.⁴⁾ 하지만 일본은 정치 영역에서 통합성 이완과 수축, 학문 영역에서 불교로부터 유교로의 변화를 경험한 끝에, 도쿠가와(德川) 시대에는 주로 '일본' 대 '외국'이라는 이분법에 기초하여 세계를 상상하게 되었다.

여몽연합군의 침공 이후의 시대는 일본 역사상 가장 국가 정체성이 희미해진 시대였다. 규슈(九州)를 거점으로 하는 세력이 중국해를 무대로 다중 에스닉(ethnic) 해적집단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명나라나 조선으로부터 '왜구(倭寇)'라고 불리는 자들이었다.⁵⁾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명나라는 일본에 왜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지만, 교토(京都)의 '공무 이중정권(公武二重政權)'에게 서방의 지방 세력을 제어할 능력은 이미 없었다.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將軍)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는 모처럼만에 '중화'에 조공하여, '일본국왕'에 책봉되었다. 이는 고대의 '왜의 오왕(倭五王)' 이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다. 또 덴노(天皇)가 아니라 쇼군이 중국의 봉작(封爵)을 받았던 것, 이후 요시미쓰의 후계자들이 반드시 이를 답습하지 않았던 것에서 나타나듯이 '일본'과 '덴노'에 정면으로 도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구조를 충실하게 따르는 자가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건국된 조선과 마찬가지로 동쪽 먼바다에 있는 일본에 대한 명나라의 관심은 적었으므로, 일본 내부에 권력 분산을 강제로 묶으려는 힘은 작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 국내의 지방군사정권들은 안심하고 서로 간의 공방에 전념할 수 있었다.

16세기 말 '일본'은 다시금 단일한 정치 통치체로서 부활했다.⁶⁾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의 좌절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성공을 통하여, 일본은 특정 권력이 다른 권력을 토벌하여 중앙이 지방을 직접 통치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중앙의 권력이 맹주(盟主)가 되어 지방군사정권의 연방을 만드는 형태로써 성립했다. 그 기본단위인 다이묘는 원래 경계 사이의 분쟁 처리를 직업으로 하는 세력이었는데, 이들의 결합체 또한 '일본'/'일본인'과 그렇지 않은 나라/사람의 영역·민족을 나누었다. '왜구'를 결정적으로 끝낸 일본인 매매금지령(1587년)이나 해적금지령(1588년)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사사로운(私)' 군사행동이 없어졌지만, '일본'과 외부의 경계도 이전보다 명확해졌다.

히데요시의 명나라 공략 계획과 조선 침공은 실패하고, 이를 위한 '일본'의 정치조직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다.⁷⁾ 어디까지나 가정의 이야기지만,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임

4)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美士) 「일본의 세계상(日本の世界像)」 아키타 시게루·나가하라 요코·하네다 마사시·미나미즈카 신고·미야케 아키마사·모모키 시로 편 『세계사의 세계사』 미네르바 서방, 2016.

5)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중세 왜인전(中世倭人傳)』 이와나미 신서(巖波新書), 1993; 하시모토 유우(橋下雄) 『중화환상-당물과 외교의 무로마치 시대사(中華幻想-唐物と外交の室町時代史)』〈일본의 대외관계4(日本の対外関係4)〉 벤세이출판(勉誠出版), 2011; 아라노 야스노리(荒野泰典)·이시이 마사토시(石井正敏)·무라이 쇼스케 편 『왜구와 「일본국왕」(倭寇と「日本國王」)』 요시카와 홍문관(吉川弘文館), 2010.

6) 후지키 히사시(藤木久志) 『도요토미 평화령과 전국사회(豊臣平和令と戦國社會)』 도쿄대학출판회, 1985.

진왜란 직후 조선을 굴복시키고 중원(中原)을 제패한 만주(滿洲) 왕조처럼, 광대한 제국 지배를 위한 집권화가 한층 더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조선 침공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 의해 히데요시의 일본이 계승되었고, 중화 제국과 조선으로부터의 보복은 없었다. 명나라와 조선은 히데요시의 침공으로 피폐해진 상태로 만주족에 대한 대응에 쫓기게 되었다. 중화를 계승한 청나라는 바다 먼 곳에 대한 정복에는 나서지 않고 교역을 허락하는 선에서 멈췄다. 한편 일각에서는 '화이변태(華夷變態)'가 원나라 때처럼 침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지만, 이는 기우로 끝났다. 그 결과, 일본 국내에서 이 이상 집권화를 촉진할 힘은 작동하지 않았다.

도쿠가와와 일본은 두 개의 중심과 약 200개의 지방군사정권으로 구성된 '쌍두연방국가(雙頭連邦國家)'이며, 따라서 그 '국가'상 또한 단일한 것이 아니었다.⁸⁾ 다이묘의 가신에게 일차적인 '국가'는 그가 따르는 다이묘의 통치조직이었으며, 일본은 그 위에 있는 우산과 같은 것이었다. 한편 도쿠가와 '공의'의 관료나 교토의 구계(公家)의 관점에서 '국가'란 일본 이외에는 없었다. 또 일본을 대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치적으로는 도쿠가와라는 것이 널리 인정되었지만, 관위(官位)나 책력(冊曆)은 '덴노'가 발급하는 것이었기에 하나의 의미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덴노는 '일본'에 관계되는 다양한 제사와 의식을 행했지만, 에도(江戸)의 공의와 다이묘들도 또한 도쇼신군(東照神君)을 기려 사해(四海)의 태평을 기원했다. 이처럼 도쿠가와 시대의 '국가'는 다의적인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0년이 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희박한 국제관계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과 외부와의 관계도 복합적인 것이었다. 조선과의 국교·무역은 쓰시마의 소 씨, 류큐를 가운데에 둔 중국과의 무역은 시마즈 씨(島津氏), 에조치(蝦夷地)와의 관계는 마쓰마에 씨(松前氏), 그리고 그 외의 상대는 공의의 직할도시인 나가사키(長崎)가 담당하는 체제였다.⁹⁾ 지금의 연방국가에서 외교를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외관계는 에도의 공의와 '4개의 창구'의 담당자 사이의 교섭을 통해 관리되었다.

그렇지만 이미지의 세계에서는 '일본'과 '외국'을 분별하는 인식의 틀이 점차 침투해갔다.¹⁰⁾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의의 그리스도교 금지 정책이 이를 촉진했다. 그 의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결과로서 신불(神佛) 융합의 범신론 질서에 융화되지 못하는 이물질(異物)을 배제하고, '일본인'을 '일본' 내부에 가두는 것으로서 기능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배제한 후에도 이웃 나라들과의 무역은 계속되었고 금지된 나라 이외의 선박은 나가사키에 합법적으로 입항할 수 있었지만, 일본인의 의지를 가진 해외 도항이나 귀국은 계속 금지되었다. 경제면에서도 공의는 종래 중국이나 그 주변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통화를 자국 주조품으로 대체하여,¹¹⁾ 18세기 중엽에는 주요한 무역

7) 아라노 야스노리·이시이 마사토시·무라이 쇼스케 편 『근세적 세계의 성숙(近世的世界の成熟)』(일본의 대외관계6(日本の対外関係6)) 요시카와 흥문관, 2010; 하네다 마사시 편, 고지마 츠요시(小島毅) 감수 『바다로부터 본 역사(海から見た歴史)』(동아시아 해역으로 배를 짓는다(東アジア海域に漕ぎだす1)) 도쿄대학출판회, 2013, 제 3부.

8) 그 개요에 대해서는 미타니 히로시 『유신사 재고—공의·왕정으로부터 집권·탈신분화로(維新史再考—公議·王政から集権·脱身分化へ)』 NHK출판(NHK出版), 2017, 제 2장. 시점에 의해 국가상이 변모하는 것은 Luke S. Roberts, *Performing the Great Peace: Political Space and Open Secrets in Tokugawa Jap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12를 참조.

9) 아라노 야스노리·이시이 마사토시·무라이 쇼스케, 앞의 책, 2010.

10) 다카기 쇼사쿠 『쇼군 권력과 덴노—히데요시·이에야스의 신국관(將軍權力と天皇—秀吉·家康の神國觀)』 아오키 서점(青木書店), 2003.

11) 역사주 : 예를 들어 게이쵸(慶長) 6년(1601)에 발행된 경장소반(慶長小判), 간에이(寛永) 연간(1624~1644년)에 발행되어 메이지(明治) 시대에 까지 널리 사용된 관영통보(寛永通寶) 등이 있다.

루트였던 조선과의 사무역을 정지시켰다. 더불어 생사(生絲)의 국산화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물류의 측면에서도 '일본'의 고립성은 높아졌다. 게다가 18세기 말에 서양이 다시금 등장하였을 때, 공의는 한 단계 더 폐쇄적인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¹²⁾ 일본인의 해외 도항 금지는 물론, 조선·류큐·중국·네덜란드를 제외한 나라들과는 교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쇄국'이나 '개국'이나, 오로지 서양의 나라들과의 교제 여부를 따지는 막부 말기의 구조는 19세기 초엽에 성립했다. '근대'의 코앞에서 일본은 정책과 심성(心性) 양면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되었던 것이다.

2 '일본'의 위상

'삼국'관 속에서 '본조', 즉 '우리나라'는 세계 변경에 자리매김되었다.¹³⁾ 붓다의 구제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좁쌀을 뿌려 놓은 것과 같은 변방의 토지(粟散邊土)'라는 자기 비하와는 반대로, 『신황정통기(神皇正統記)』¹⁴⁾는 태양신의 자손이 영원히 통치하는 세계의 중심이라는 세계관을 대치시켰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외부를 무시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사고방식이였다. 동시에 불교도든, 유학자든 그 가르침은 천축이나 중국에서 가져온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적어도 학문과 지식의 세계에서 일본은 변경에 속한다는 것이 명백한 공리였다. 19세기에 서양이 친숙한 존재가 되고 그들로부터 '문명'을 발견했을 때, 이와 같은 '일본변경관(日本邊境觀)'이 재확인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7세기 후반 이후 일본에서는 한학(漢學) 교양이 널리 침투해 있었다. 예를 들어 경(經)·사(史)·시(詩)를 배울 때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는 중급자 이상을 위한 필수과목이었다. 따라서 일본사를 배우려는 경우에도, 먼저 『사기』나 사마광(司馬光)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비롯한 중국의 정사(正史)나 그 축약판인 증선지(曾先之)의 『십팔사략(十八史略)』과 같은 서적이 역사 지식의 배경으로써 참조되었다. 17세기에 린케(林家)¹⁵⁾가 공의의 명을 받아 최초의 일본통사인 『본조통감(本朝通鑑)』을 편찬했을 때, 그들은 일본의 사실(史實)이 중국의 선례에 부합한다는 '화한일철(和漢一轍)'을 자랑으로 삼았다.¹⁶⁾ 심지어 린케 안에서는 천황의 시조를 (태양신의 자손이 아닌) 중국 춘추전국시대 오나라의 태백(泰伯)에서 구하고자 하는 생각마저 갖고 있었다. 또 19세기의 이야기지만, 라이 산요(賴山陽)는 『일본외사(日本外史)』를 집필할 때 『사기』의 항우본기(項羽本紀)를 낭송한 뒤에 집필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¹⁷⁾ 다른 지식인들도 고대의 육국사(六國史)¹⁸⁾나

12) 이노베 시게오(井野辺茂雄) 『신정증보 유신전사 연구(新訂増補 維新前史の研究)』 중문관서점(中文館書店), 1942; 미타니 히로시 『페리의 내항(ペリー來航)』 요시카와 홍문관, 2003.

13) 나루사와 아키라(成澤光) 『정치의 언어-의미의 역사를 둘러싸고(政治のことば-意味の歴史をめぐって)』 고단샤 학술문고(講談社學術文庫), 2012(원저, 1984년).

14) 역자주 : 『신황정통기』는 1339년 기타바타케 지카후사(北畠親房)가 히타치(常陸)의 성에서 북조(北朝)와 싸우며 집필한 역사서이다. "대일본은 신국이다"로 시작되는 이 서적은 신대(神代)부터 황위 계승의 경위를 적어 대의명분론에 기초하여 남조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15) 역자주 : 하야시 라잔(林羅山) 이래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쿠가와 막부의 관료로서 교육, 법제, 외교 등을 담당한 가문이다.

16) 오자와 에이치(小澤榮一) 『근세 사학사상사 연구(近世史學思想史研究)』 요시카와 홍문관, 1974; 사카모토 다로(坂本太郎) 『사서를 읽다(史書を讀む)』 중앙공론사(中央公論社), 1981.

17) 사이토 마레스(齋藤希史) 『한문맥과 근대일본-또 하나의 언어 세계(漢文脈と近代日本-もう一つのことばの世界)』 NHK출판, 2007, p. 64.

화문(和文) 역사책(鏡物), 『평가물어(平家物語)』, 『태평기(太平記)』, 혹은 각종 군기(軍記)를 즐길 때 틀림없이 같은 태도를 취했을 것이다. 즉 중국사를 '보편사'로서 규정하고, 의식/무의식을 가리지 않고 그 내용을 참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자는 일본 지식인의 시야를 중국과 그 주변에 한정시키는 경향을 낳았다. 그들은 중국 저편에 천축이 있고, 또 그 건너에는 과거 일본을 방문했던 선교사나 상인들의 본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문으로 쓰인 마테오 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나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의 『직방외기(職方外紀)』는 금서였지만, 몰래 읽을 수 있었다. 또 18세기에는 네덜란드어의 습득이 이루어져 직접 유럽으로부터의 정보를 접할 수도 있었다.¹⁹⁾ 하지만 세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동시대 내지는 이전의 지리 지식에 집중되어 중국사와 한문 세계의 외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역사로 향하지는 못했다. 한편, 중국의 기전체 정사에는 열전(列傳)이 포함되어 있는데, 열전에는 중화의 심장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사기』의 남월(南越), 동월(東越), 조선, 서남이(西南夷) 등의 열전이나 『삼국지』의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과 같은 주변부의 기술도 있었다.²⁰⁾ 중화의 역사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다루는 범위가 넓고, 더구나 유학자에게 그 사실은 윤리를 이해하는 기준이기도 하였기에 이것만으로 세계사에 필적할 수 있다고 이해되었다. 일본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옆 나라에서 편찬된 『삼국사기(三國史記)』나 『동국통감(東國通鑑)』도 참조했지만, 이들 또한 중국 정사의 세계를 보완하는 것이었을 따름이다.²¹⁾

3 일본 정사의 '외국'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시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일본의 통사가 저술되었다. 가장 이른 것이 도쿠가와 종가(宗家)의 『본조통감』이었다.²²⁾ 린케 삼대(三代)가 명을 받고 편찬한 이 책은 진무(神武)부터 고요제이(後陽成) 덴노까지, 즉 일본 국가의 시원에서부터 세키가하라(關ヶ原) 전투(1600년) 이후 도쿠가와파의 패권 확립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본조통감』은 종래의 사론(史論)과는 달리 『자치통감』을 모방하여 할 수 있는 한 사료를 모은 뒤 비교·고찰을 거쳐 사실(史實)을 인정하고 이를 편년체로 엮은 서적이다. 학문적인 역사의 효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일본사'의 일체성과 일관성을 처음으로 계통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도 획기적인 책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공적으로 간행되지 않았다. 사본(寫本)으로서 유출되기도 했지만, 그 독자층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기 어

18) 역사주 : 나라(奈良)·헤이안(平安) 시대의 조정에서 편찬된 여섯 편의 국사(國史)로, 즉 『일본서기(日本書紀)』, 『속일본기(續日本紀)』, 『일본후기(日本後紀)』, 『속일본후기(續日本後紀)』, 『일본문덕천황실록(日本文德天皇實錄)』,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를 의미한다.

19) 개국백년기념문화사업회(開國百年記念文化事業會) 편, 아유자와 신타로(鮎澤信太郎)·오쿠보 도시아키(大久保利謙) 집필 『쇄국시대 일본인의 해외지식-세계지리·서양사에 관한 문헌 해제(鎖國時代日本人の海外知識-世界地理·西洋史に關する文獻解題)』 겐겐샤(乾元社), 1953.

20) 시게노 야스즈구(重野安綱) 교정 『사기열전』 하(한문대계 제7권(漢文大系第七卷)) 후잔보우(富山房), 1911; 사마천 지음, 오가와 다마키(小川環樹)·이마타카 마코토(今鷹眞)·후쿠시마 요시히코(福島吉彦) 옮김 『사기열전』(四) 이와나미 문고(巖波文庫), 2016; 도도 아키야스(藤堂明保)·다케다 아키라(竹田晃)·가게야마 데루쿠니(影山輝國) 『왜국전-중국정사에 그려진 일본(倭國傳-中國正史に描かれた日本)』 고단샤 학술문고, 2010.

21) 오자와 에이치, 앞의 책, 1974.

22) 오자와 에이치, 앞의 책, 1974.

렵다. 다만 그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하야시 가호(林鷺峯)의 『일본왕대일람(日本王代一覽)』은 『본조통감』 완성 이전인 1663년에 간행되었다.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는 『독사여론(讀史余論)』을 집필할 때 이 책을 늘 곁에 두었고, 18세기 말 이후에는 세키가하라 전투까지를 다룬 속편과 함께 중간되었다.

『본조통감』에는 '외국'의 사자나 도항해 온 자들에 관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편년체이므로 '외국'에 관해 정리한 기술은 없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편찬자의 세계관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미토(三戸)의 도쿠가와 가계가 편찬을 시작한 『대일본사(大日本史)』는 기전체를 취하고 있고 열전 말미에 「외국」을 적고 있으므로, '일본사'지만 세계상을 살필 수 있다.²³⁾

다만 『대일본사』의 편찬과 간행에는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 일단 기(紀)와 전(傳)이 완성되어 막부에 헌상된 것이 1719년, 한때 작업이 정체되었다가 지(志)와 표(表)의 편찬이 재개된 것이 19세기 초엽이었다. 이 작업과 함께 내용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논찬(論纂)을 삭제한 기와 전이 조정에 보내져 『대일본사』라는 이름과 정사에 준하는 대우를 인정받은 것이 1810년, 기와 전이 간행된 것이 미국의 페리(Matthew C. Perry)가 내항하기 한해 전인 1852년, 마지막으로 지와 표가 갖추어지고 「외국전」이 「제번전(諸蕃傳)」으로 변경되어 그 전권이 간행된 것이 1906년이었다.²⁴⁾ 장기간에 걸친 편찬과 수정으로 인해 어느 텍스트를 참조하면 좋을지 선택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1852년 간행된 기와 전 중에, 열전 「외국」의 구성을 소개한다. 물론 이것이 18세기 초엽의 텍스트와 거의 같은지는 지면의 여건상 고찰하기 어렵지만, 다음 절에서 소개할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의 『어계개언(馭戒慨言)』(1795년 간행)보다는 포괄적으로 세계를 기술하고 있으며 초기의 텍스트를 노리나가 참조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1852년의 텍스트를 살펴본다.

1852년에 간행된 『대일본사』는 열전 170권 말미에 「외국」 열두 권을 실고 있다. 이 구성은 수·당·송·원·명나라부터 시작하여 이극고·신라·고구려·고려·백제·임나(任那)·탐라·발해에 대해서 상술한 뒤, 최종적으로 에조(蝦夷)·숙신(肅愼)·여진·류큐·토화라(吐火羅, 사위(舍衛)·남천축·임읍(林邑)을 의미)·곤륜(崑崙)에 이르는 것이었다. 순서상으로는 중화 왕조를 중시하고 있지만, 분량이라는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나라들과 발해·에조의 비중이 높다.

먼저 중국과의 관계는 대등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본조통감』은 '중국'이나 '중화'라고 적었지만, 이 책은 일본이 처음으로 교섭하기 시작했다고 여겨진 수나라부터 시작하여 국명을 지명으로서도 사용한다. 이는 '당', '한'을 적고 가라(から)라 부르거나, '당토(唐土)', '한토(漢土)'를 적고 가라 혹은 모로코시(もろこし)라고 부르던 당시의 관습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또 오늘날 '왜의 오왕'이라고 부르는 이들의 조공이나 책봉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부정한다. 중국 역대 사서가 기록한 사절은 '규슈의 간민(鎮西の奸民)'이 일으킨 소행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3) 도쿠가와 미쓰쿠니(德川光圀) 찬수, 도쿠가와 쓰나에다(德川綱條) 교정, 도쿠가와 하루모리(德川治保) 중교(重校) 『대일본사』 전100책(전·기), 1852; 동 『대일본사』 전331책(기·전·지·표·목록), 후작 도쿠가와 와케(德川家), 1906-1907; 동, 자산(紫山) 川崎三郎(가와사키 사부로) 옮김 『역주 대일본사(譯註大日本史)』 전12권, 건국기념사업협회(建國記念事業協會)·쇼코우샤(彰考舎), 1941-1943(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그 개략에 대해서는 사카모토 다로, 앞의 책, 1981 참조

24) 이에 대한 경위는 『역주 대일본사』 12권에 수록된 제수사기록(諸修史記録)을 참조. 또 『대일본사』의 경우도 『본조통감』과 마찬가지로, 본편 이전에 축약판이 간행되었다. 아오야마 노부유키(青山延于) 『황조사략(皇朝史略)』 정·통, 전12권, 1926·1831.

다음으로 한반도의 나라들은 '그밖에 제번(其他諸蕃)'의 선두에 서 있다. 여기서 임나와 진구(神功) 황후의 역할은 사실로써 중시되었다. 즉, 신라와 고구려, 백제가 거의 동시에 복속되어 '서번(西蕃)'이 되었는데, 이 '삼한(三韓)'을 임나를 통해서 통제했다고 적었다. 다만 고려(여기서는 고구려를 의미)에 대해서 일본과 동시에 중화 제국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있어, '임나 또한 실은 고구려와 같았지 않았을까'라고 적은 것처럼, '한지(韓地)'의 국가에 대해서는 '이중조공체제(二重朝貢體制)'가 존재했던 것처럼 서술했다. 숙신과 발해에 관해서는 '모화(慕化)·내귀(來歸)'의 사실을 적고, 발해에 관해서는 한반도 나라들 모두를 합친 것과 같은 분량으로 두 권을 할당했다. 사신의 왕래나 교류의 사료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다음 에조 두 권이 온다. 국가를 가지지 못한 에조였지만 「외국」 안에 넣어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류큐에 관한 기술은 간단히 끝맺었다. 『대일본사』가 다루는 시대는 남북조 시대(1336~1392년)까지인데, 이 시대의 사료에서 에조는 일본 정권의 지배에 반항한 대표 사례이며, 반대로 류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여진이나 특히 몽골에 관한 기술이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열전 「외국」은 첫머리에서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신성은 먼 곳의 백성을 따르게 하는 법도와 잘못을 회개하도록 징계하는 뜻, 이로 말미암아 분별해야만 한다(神聖柔遠之制, 膺懲之意, 是に由りて睹るべし)."라고 결론 맺고 있다. 일본과의 외교관계와 관련되는 한에서 각국의 내정을 적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외교관계는 '일본사'의 일부이므로 당연히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를 기술했던 것이고, 이는 중국과의 관계가 대등함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었다. 따라서 중국을 일본의 속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니며, 한반도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일본과 중국에 동시에 복속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구조를 가졌다. 일본 중심이라고 해도, 다음 절에서 살펴볼 『어계개언』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견해이다.

이쯤에서 한발 더 나아간 해석을 시도해보자. 18세기 초기에 적힌 논찬에서 아사카 단파쿠(安積澹泊)는 '이적(夷狄)'에 관해서 "안에 있는 자를 구축하고, 바깥에 있는 자를 차단한다(内に在る者はこれを驅逐し, 外に在る者は之を隔絶す)."라며, 잡거(雜居)를 부정하고 공간적 격리를 주장했다.²⁵⁾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후 '쇄국' 정책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1852년 간행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무릇 여러 나라의 사신이 온다면 그 성의를 받아들이고, 지성(至誠)을 가져오는 자는 회유·안무하며, 서장(書狀)의 표현이 무례한 자는 다자이후(大宰府)에서 돌려보낸다(大凡, 諸國之使聘之來たるや, 其の款を納れ, 誠を輸す者は, 懷柔·綏撫し, 書辭禮無き者は大宰府より放還す)." '이적'이 아닌 '제번'에 대해서는 '유원(柔遠)'의 가능성을 적어둔 것이다. 외교사를 기술할 때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페리가 내항하기 한 해 전에 '존왕양이론(尊王攘夷論)'의 본가인 미토의 수뇌부가 위와 같은 표현을 인정하고 간행했다는 것으로부터 다른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에컨대 미토의 존왕양이를 주장하는 자들과 친교를 가지고 있었던 요코이 쇼난(横井小楠)은 페리의 내항 직후에 외국 사절을 대우할 때 '도가 있는 나라(有道の國)'와 '무도의 나라(無道の國)'를 분별해야 한다고 적으며, 개국론(開國論)으로 전환되는 길을 열었다.²⁶⁾ 흑시

25) 비도우 마사히데(尾藤正英) 「황국사관의 성립(皇國史觀の成立)」, 『일본의 국가주의—「국체」 사상의 형성』(日本の國家主義—「國體」思想の形成)』 이와나미 서점, 2014(원저, 1983).

26) 요코이 쇼난 『이로응접대의(夷虜應接大意)』 가에이 6년(嘉永六年), 『요코이 쇼난 관계사료(横井小楠關係史料)』 1, 도쿄대학출판회, 1977.

열전 「외국」을 읽은 것이 이 주장의 배경이었을지도 모른다.

4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황조(皇朝)' 중심관

18세기 말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고사기전(古事記傳)』을 집필하면서, 동시에 『어계개언』이라는 소책자를 저술하고 1796년 간행했다.²⁷⁾ 이 책은 '스메라미쿠니(皇朝)'와 서방의 번국 '가라(戎)'의 나라들의 관계사를 다루었다. 노리나가는 오오미쿠니(大御國)가 '아마쓰 히쓰기(天津日嗣,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자손)'가 통치하는 나라이므로 세계의 중심에 어울리는 외교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고대로부터 히데요시까지에 이르는 역대 위정자의 외교, 특히 서신의 양식을 논평했다. 서양과의 관계는 그리스도교를 비롯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웃 나라와의 외교만을 논한다는 점에서 18세기라는 시대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조선과의 관계 또한 매우 간단히 다룰 뿐, 그 관심은 중국 = '중화'를 자인하는 나라의 무례함을 규탄하고 이를 일본을 상위에 놓는 관계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간에서는 스이코(推古) 덴노가 수나라에 보낸 국서에 "해 뜨는 나라의 천자가 해 지는 나라의 천자에게 보낸다(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之天子)."라고 적은 것을 찬양하는데, 이 대등한 문언(文言)조차 옳지 않으며 "천황이 수나라 왕에게 조칙을 내린다(天皇勅隨國王)."라고 적어 피아의 입장을 뒤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견당사는 필요악에 불과하며, 그 중단이나 정지는 "경사스럽고 뛰어난 수(めでたく、たけきわざ)"였다. 하물며 "모든 것이 갖춰진 경사스러운 치세(万にことたらひてめでたき御代)"에 "중국 땅 오랑캐(もろこしの戎)"와는 교제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아시카가 요시미쓰 이하 아시카가 쇼군들이 책봉을 받은 것은 "황국을 중국의 종속국으로 만들어 후대까지 심한 치욕을 남긴(皇國をから國のやつこになして、末の代迄、いみじき恥をのこし)" 것이다. 반대로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복하고자 시도한 것은 그가 간파쿠(關白)로서 덴노의 존위를 표면에 내세우면서 외교를 행한 것 함께 대단히 칭송받을 만한 것이다.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나 선승이 주고받은 외교 문서는 졸렬한 것으로 보고, 명나라 정복을 위해서는 조선에 집착하지 말고 남경에서 북경으로 북상할 전략을 취해야만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요쿠니가미(豊國神)'의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공로(こしかたにためしなき、此君のいさを)'는 노골적으로 예찬한다. 결론에서는 '아즈마테루칸미오야노미코토(東照神御祖命)'가 '모코로시'와 교제를 끊은 것은 긍정하지만, "그(=중국) 국왕이 마침내 도리에 걸맞게 (자신을) 노복이라 고하며 복종하기(その國王がつひにはことはりの如く、みやつことまうして、まつろひまる)"를 기대하며 끝맺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이기에 나라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조차 일본 중심주의가 철저하게 적용되었다. 외국의 일반 명칭은 '바깥 나라(とつ國)'(외국), '다른 나라(あだし國)'(타국), '타인의 나라(ひと國)'(타국)라고 부르며, 외교문서나 법령에서 자주 사용된 '이국(異國)'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과 외교를 가진 나라들은 이따금 '예속국(やつこくに)'(번국)이라고 불러 종속적인 위치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그 특징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일본을 '일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사기전』의 서장에서 노리나가는 『일본서기(日本書紀)』를 연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즉 사서의 제목에 이름이 새겨지는 나라는

27) 모토오리 노리나가 『어계개언』 스즈키야노야(鈴之屋), 1796(『모토오리 노리나가 전집(本居宣長全集)』 제8권, 치쿠마 서방(筑摩書房), 1972).

멸망한 왕조여야만 하며, 게다가 '일본'이라는 호칭은 '중국(唐山)'과 짝이 되는 존재로서 고안된 것이므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²⁸⁾ 그는 우리나라(わが國)라는 말조차 부정했다. '본조', '아국(我國)', '오국(吾國)' 모두 옳지 않으며 '황조', '스메라미쿠니', '오오미쿠니' 이외의 호칭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일본의 중심성을 주장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대항을 적는 담론은 그의 저술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가라고코로(漢意)' 비판과 관계가 있다. 이전에 필자는 이 모순되고 애증 얽힌 심리를 '잊을 수 없는 타자(忘れ得ぬ他者)', 즉 억지로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리어 잊을 수 없게 되는 증후군으로 이름 짓고, 이를 일반적인 모델로 확장해서 내셔널리즘이 존재하는 곳에는 언제 어디에서든 발견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²⁹⁾ 중화 제국의 주변, 특히 주변국이 어느 정도 문명을 만들게 된 시대에는 '잊을 수 없는 타자' 증후군은 더욱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다.

노리나가가 의식한 세계는 좁았다. 그 닫힌 세계 속에서 그는 이상적인 일본상을 그려냈는데, 18세기 일본은 그러한 꿈을 자아낼 수 있었던 당시 세계에서도 드문 장소였다. 하지만 그가 『어계개언』을 집필하고 있을 무렵, 에조치에는 러시아인이 출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이상향 붕괴의 물꼬가 트이고 있던 것이다.

5 '서양' 재등장에 의한 세계상의 변용

19세기 전반 일본인의 세계상은 크게 변용하였다. 먼저 천축의 저편과 지구상의 세계 전체가 의식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본의 지식인 중 일부는 스스로 네덜란드어를 배우고, 나가사키를 통해 유입된 난서(蘭書)를 통해서 세계의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다.³⁰⁾ 그 대표적인 성과가 아편 전쟁이 끝나고 페리가 내항하기 10년 전에 공의의 허가를 얻어 간행된 미스쿠리 쇼고(箕作省吾)의 『곤여도식(坤輿圖識)』 정편과 속편(각각 1845, 1847년 간행)이다. 이 책은 당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세계를 개관한 서적으로, 그 내용은 만국의 병립과 경쟁, 독립국과 종속국, 그리고 서양 여러 나라의 멈추지 않는 제패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³¹⁾

한편 서양으로부터의 위협은 일본 중심관을 더욱 강화하는 측면도 있었다. 일본을 '외국'이 아닌 '이적'과 구별하고, 세계의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근거는 만세일계(萬世一系)의 황통(皇統) 이외에는 없다는 신념이 퍼지고 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는 『대일본사』에도 반영되었다. 1852년에 기와 전이 간행된 이후, 지와 표의 편찬은 계속되었다. 이는 막부 말기 미토의 격렬한 내분으로 한때 중단되었지만, 폐번(廢藩, 1871년) 후에도 편찬 노력은 이어져 러일전쟁 이후 20세기 초엽에 전권이 완성, 간행되었다. 이때 열전 중 「외국전」은 「제번전」으로 바뀌었고 그 구성 또한 변경되었다.³²⁾ 직접적으로는 에조치와 류

28) 모토오리 노리나가 『고사기전』 스키야노야, 1790(『모토오리 노리나가 전집』 제9권, 치쿠마 서방, 1968).

29) 미타니 히로시 「내셔널리즘의 생성—「내외」의 엄격한 구별, '잊을 수 없는 타자'의 역학(ナショナリズムの生成—「内外」の峻別, 「忘れ得ぬ他者」の力学)」 『메이지 유신을 생각하다(明治維新を考える)』 이와나미 서점, 2012. 혹은 미타니 히로시, 앞의 책, 2020. 3장 참조.

30) 오자와 에이이치 『근대 일본사학사 연구 막말편—19세기 일본 계몽사학의 연구(近代日本史學史の研究 幕末編—19世紀日本啓蒙史學の研究)』 요시카와 홍문관, 1966.

31) 미타니 히로시, 앞의 책, 2020. 제5장 참조.

규 등이 내국화(內國化)되었으며, '내속의 나라, 기미의 주(內屬の國, 羈縻の州)'라는 기술은 중화 제국이나 먼 곳의 나라들 앞으로 옮겨졌다. 이전에는 '기미'의 나라 첫머리에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의 나라들이 적혀 있었다. 막부 말기의 간행본에서는 '유원'과 '응징'의 기술이 적혀 있었지만, 메이지 말년의 간행본에서는 '내외의 변(内外の弁)'이 강조되었고, 그 '내(內)'에는 일본 주변이 모두 포함되었던 것이다. 중화 세계관은 일본이 제국으로 바뀌어 나갈 때 완벽하게 복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인의 정체성은 이후 서양과 이웃 나라 사이에서 줄곧 요동쳤다. 근세인이 남긴 역사상은 근대라는 국면에 이르러 뒤틀림을 동반하면서 근대인의 세계상에 깊은 각인을 남겼던 것이다.³³⁾

(미타니 히로시)

III 한국-고구려 · 신라 · 고려

1 한반도 여러 왕조의 세계상과 세계관

한반도에서 흥망을 거듭한 전근대의 여러 왕조는 항상 중국 왕조와의 관계를 중시했다. 중국 황제의 덕을 사모하여 조공한 오랑캐(동이, 서융, 남만, 북적) 여러 민족 중에 있어, 가장 충실한 동이의 일국으로서 그 세계 인식 또한 자신을 스스로 중국 황제의 천하적 세계 인식 속에 적극적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근세 시기 조선 왕조는 명나라 멸망 이후의 이민족 왕조인 청나라를 정통 왕조로 인정하지 않고, 명 왕조를 계승한 '소중화'라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형성해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선 왕조의 신하들은 조선왕을 '천하(殿下)'라 부르며 자신들을 청나라 황제(즉, 폐하)의 배신(陪臣)이라고 생각했으며, 중국 황제의 천하적 세계 인식 속의 자기 인식에는 약간의 흔들림도 없었다.³⁴⁾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다면, 옛날부터 줄곧 한반도의 왕조는 중국 황제의 천하적 세계 인식 아래에서 신하로서 자기의 위상을 정한 것이 된다. 특히 고려 시대에 들어서 과거 제도가 도입되고(958년) 중국적 교양이 관료 선발의 기준이 되자, 고려와 조선 왕조를 거쳐 지배계층은 중국적 세계관에 자기를 겹쳐가며, 차츰 세계관에 포섭되는 일원으로서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천하적 세계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32) 『역주 대일본사』 12.

33) 보다 일반적인 지적 동향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히로시(渡辺浩) 『동아시아의 왕권과 사상(東アジアの王權と思想)』 도쿄대학출판회, 2016(초판, 1997).

34) 조선 왕조 말기,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년)는 중국 정사 『송사(宋史)』를 개수하여 『어정송사전(御定宋史箋)』을 편찬하고 있다. 『송사』는 원나라에 완성되었지만, 정통 논쟁이 있어 명나라 대에도 몇 번이고 개수 작업이 되풀이되었다. 이 『송사』를 정조는 조선 왕조의 입장에서 개수하여, 송나라 말기의 황제로서 단종(端宗)과 말제(末帝)의 본기를 세우거나, 요(遼), 금(金), 몽골을 열전에 넣거나, 「유민전(遺民傳)」을 세워 송나라에 충절을 다한 사람들을 현창(顯彰)하거나 해서 주자학적 명분론으로부터 송, 명, 조선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어정송사전』의 편찬을 통해서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소중화'가 아니라 '조선형 중화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조선 왕조 지배층의 역사의식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홍성민(洪性珉) 「『어정송사전』 「요전(遼傳)」으로부터 본 『송사』 개수의 역사적 의의—중국 사서의 편찬에서 보이는 조선형 중화주의(『御定宋史箋』 「遼傳」から見た『宋史』改修の歴史的意義—中國史書の編纂に見る朝鮮型中華主義)」 『송대사』로부터 생각하다 편집위원회(『宋代史』から考える編集委員会) 편 『송대사로부터 생각하다(宋代史から考える)』 급고서원(汲古書院), 2016).

실제로 고려 시대에 편찬된 현존 최고(最古)의 사서인 『삼국사기』(1145년)나 조선 시대에 편찬된 『고려사』(1451년)는 이와 같은 세계관을 가진 관료 지식인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편찬되었다. 그 결과 고려 시대나 그 이전의 한반도에서 흥망성쇠를 거친 왕조의 세계관에 관한 여러 사상(事象)은 편찬자 자신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중국적 천하관에 의해 취사선택되고 또 지탄받았으므로, 이것들이 이전 시대의 왕조를 살아간 지배층의 인식을 사서 안에 반영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유교 관료에 의한 관찬(官撰) 『삼국사기』와는 별도로 사찬(私撰) 『삼국유사』(1280년대)를 비롯한 사서나 당대의 자료(출토 문자 자료) 등을 통해 관찬 사서에는 전해지지 않는 고려 이전의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세계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습은 아직 그 전모를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 장에서는 이들 출토 문자 자료나 편찬 자료로부터 단편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 세계관이나 세계상의 일단(一端)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고구려의 세계상

고구려(?~668년)는 기원전 1세기에 이미 중국 측에 그 존재가 알려져 있었고, 한 왕조가 설치한 군현과의 대립 항쟁을 통해 점차 중국 동북 지방과 한반도 북부에 세력을 확대했다. 3세기 초엽에는 공손 씨(公孫氏) 정권의 개입으로 분열되었지만, 그 일파가 현재의 중국 집안(集安)을 도읍으로 삼고 이후 10명의 왕이 왕위를 계승했다. 장수왕(長壽王, 재위 413~491년)은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사후 햇수로 3년 동안 초빈(草殯)한 뒤 유골을 능묘에 이장하고 비문을 세웠다(414년). 약 6미터의 거대한 비석에 광개토대왕이 역대 여러 임금의 능묘의 옆에 각각 비석을 세웠던 것과 역대 능묘의 수묘인(守墓人)에게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330호(戶)로 구성된 수묘인 체제를 정비하고 이를 전제로 수묘인에 관한 법령을 선포(宣告)한 것을 새겼다. 이것이 곧 광개토대왕비이다.

비석의 내용은 고구려 왕가의 유래와 그 세계(世系), 광개토대왕 시대의 무훈, 수묘인 330호의 목록, 광개토대왕의 유조(遺詔), 수묘인에 관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광개토대왕 일대의 무훈이 기록된 것은 수묘인들의 출자(出自)가 고구려의 정치 질서(지배·복속 관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개토대왕은 수묘인 체제의 정비에 많은 공적이 있었기에 무훈과 수묘인 기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기록된 것이다. 비석 첫머리에 기재된 고구려 왕가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옛적에 시조이신 추모왕(鄒牟王)께서 나라를 세우셨는데, 북부여에서 나오셨다. 천제(天帝)의 아드님이었고, 어머니는 하백(河伯, 물의 신)의 따님이셨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가 있었다. □□□□말을 타고 순행을 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길에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거치게 되었다. 왕께서 나루터에 "나는 황천(皇天)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해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이를 물에 띄우라"라고 하셨다. 그 말에 응하여 곧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 떼가 물 위로 떠올라, 이로써 강물을 건넜다. 비류곡(沸流谷) 흘본(忽本) 서쪽 산상(山上)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왕이 왕위를 즐기지 않으니 하늘이 황룡(黃龍)을 보내어 내려와서 왕을 맞이하였다.³⁵⁾

35) 역자주 :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有聖□. □□□□

여기서 보이듯이 시조 추모왕의 부모는 천제와 하백(물의 신)의 딸이며, 알을 깨고 태어나 이후 북방의 부여로부터 큰 강을 건너 고구려의 땅에 다다라서 건국했다고 적고 있다. 고구려는 427년 집안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는데, 435년에 평양을 방문한 북위(北魏)의 사자(使者) 이오(李傲)는 고구려의 건국 신화를 위와 같이 전하고 있다(『위서(魏書)』 「고구려전」). 즉 적어도 4세기 말에 고구려인들이 천제를 아버지로 하고 하백의 딸을 어머니로 하는 시조를 모시는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광개토대왕비에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시호)의 '영락오년(永樂五年)'(395년)로부터 '영락 20년'에 이르는 8년 8조의 무훈이 연대기적으로 적혀 있다. 그 무훈 기사는 광개토대왕 자신이 출진한 전쟁과 군대의 파견을 명령한 전투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고구려왕의 '예민(隸民)'인 비려(碑麗, 거란의 한 부족), 백잔(百殘, 백제), 신라, 동부여 등이 '조공'하지 않거나, 예민으로서의 서약을 저버리거나, 적국(예를 들어 왜)와 함께 반역을 일삼거나 하기 때문이었다. 그때 광개토대왕은 무력으로 여러 나라를 정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왕 일대의 전과는 "64채의 성과, 1400개의 마을)(城六十四, 村一千四百)"이었다고 한다.

비문의 첫머리에서 왕가의 출자가 천제의 아들인 것을 선언하고, 무훈 기사에서는 고구려 독자의 연호(영락)가 사용되고 속민(屬民)의 여러 나라에 '조공'을 요구했다고 적고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는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³⁶⁾

5세기 전반에 세워졌다고 추정되는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 한국 충주시 소재)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비문의 첫머리에는 "5월에 고려태왕의 조왕공과 신라 매금은 세세토록 형제같이 지내기를 원하며, 그 위아래가 서로 화목하고 하늘을 지키며 동이의 매금은 ……(五月中高麗太祖王□新羅寐錦, 世世爲願如兄如弟, 上下相和守天, 東夷之寐錦 ……)"(※□는 공란)이라고 적혀 있어, 고려왕과 신라 매금(신라 고유의 왕호)이 '하늘' 아래에서 지배·복종 관계에 있고, 신라왕은 '동이'로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이 비문에는 신라왕을 비롯해 고관에게도 의복이 수여되었다는 점을 명기하였는데("敎諸位賜上下衣服"), 이를 통해 한나라가 고구려왕 이하, 그 신하의 의복을 하사한 것을 모방하여 고구려왕이 신라에게 같은 방법으로 의례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³⁷⁾

이처럼 광개토대왕 시대에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독자의 세계관이 실재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는 동시대의 중국 왕조에 대한 속 깊은 배려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두 비문은 '황제' 호칭이 아니라, '태왕(太王)'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왕명은 '조(詔)'나 '勅(칙)'을 피해서 제후의 명령인 '교(敎)'를 적은 점은 고구려 독자의 세계관을 검토할 때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또 중국 사서에 고구려의 승리가 전해지고 있더라도, 광개토대왕비에는 중국 왕조와의 전투에 관한 내용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어, 어디까지나 고구려왕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 세계가 구상되고 있다.³⁸⁾ 중국의

□命駕, 巡幸南下, 路由夫餘奄利大水. 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郎, 鄒牟王, 爲我連馭浮龜. 應聲卽爲連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而建都焉. 不樂世位, 因遣黃龍來下迎王 (※□는 판독 불능 문자).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 제1면 일부(판독자: 노태돈).

36) 이성시 「표상으로서의 광개토왕비문(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전쟁의 장으로서의 고대사—동아시아사의 행방(戰爭の場としての古代史—東アジア史のゆくえ)』 이와나미 서점, 2018.

37) 이성시 「신라의 국가형성과 가야(新羅の國家形成と加耶)」 스즈키 야스타미(鈴木靖民) 편 『왜국과 동아시아(倭國と東アジア)』 요시카와 흥문관, 2002.

38) 이성시, 앞의 논문, 2018.

존재를 무시해서는 자기의 질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하면서도,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 세계를 추구했던 것이다.

3 신라의 세계상

중원고구려비에 보이듯이, 5세기경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6세기에 이르자 북진하기 시작하여 고구려의 영역을 침식하고, 이들 새롭게 편입된 영역에 국왕이 순수비(巡狩碑)를 건립했다. 진흥왕(재위 540~576년)이 건립한 비석은 지금까지 5개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하나인 마운령비(摩雲嶺碑, 568년)의 첫머리에는 신라의 연호, 태창원년(太昌元年)이 적혀 있으며, 이하와 같은 왕 된 자로서의 세계관을 선포하고 있다.

제왕은 연호를 세우고, 자신을 닮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짐(朕)은 역수(歷數, 기운)가 몸에 이르러 위로는 태조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함에, 몸을 조심하며 스스로 삼가나 건도(乾道, 하늘의 도)를 어길까 두렵다. 또 하늘의 은혜를 입어 운수를 열어 보여주고, 신지(神紙)에 명감(冥感)하여 부(符, 천명을 나타내는 자연현상)에 따라 셈에 응하였다(즉, 천명에 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여 널리 백성과 토지를 얻으니, 이웃 나라가 신의를 맹세하고, 화사(和使)는 서로 통하였다. 아래로 스스로 헤아리니, 신고(新古)의 민초를 무육(撫育)하였으나 오히려 도화(道化, 덕화가 미치는 것)는 고루 미치지 않고, 은혜가 베풀어짐은 아직 있지 않다고 한다. 여기에 무자년 가을 8월 관경(管境)을 순수하여, 민심을 살펴서 위로하고 이로써 그 노력을 치하하고자 한다.³⁹⁾

비문 첫머리의 연호 다음으로 '진흥태왕(眞興太王)'을 적으며 황제호를 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제왕은 연호를 세운다(帝王建號)'이나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또 천명과 덕화의 사상에 기반하여 변경 지역을 순행하고, 새로 받아들인 영역의 민초를 위무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서 신라왕이 중국 황제와 같이 천하적 세계관에 의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다.⁴⁰⁾

실제로 신라가 536년 연호를 정하여 650년에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기 전까지 독자의 연호를 썼다는 사실이 『삼국사기』에도 전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520년에 관위 제도와 이에 수반되는 독자의 의복 제도를 정하여 649년에 당나라의 의복으로 고치기 전까지 고유의 의복 제도가 존속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 『삼국사기』의 편찬자 김부식(金富軾)은 신라의 연호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서 '논찬'을 더해, 신라가 중국의 신하이면서도 사사롭게 연호를 칭한 것을 분수를 넘는 잘못이라고 비판하면서 당나라 연호로 고친 것을 평가하고 있다.

당나라에 대한 신라의 신종(臣從) 정책의 배경에는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의 격렬한 공격을 견뎌내기 위한 전략으로서 당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이 있다. 당나라

39) 역자주 : 帝王建號, 莫不修己, 以安百姓. 然朕歷數當躬, 仰紹太祖之基, 纂承王位, 兢身自慎, 恐違乾道. 又蒙天恩, 開示運記, 冥感神祇, 應符合竿. 因斯四方託境, 廣獲民土, 隣國誓信, 和使交通. 府自惟忖, 撫育新古黎庶, 猶謂道化不周, 恩施未有. 於是歲次戊子, 秋八月, 巡狩管境, 訪採民心, 以欲勞賢. 『마운령 신라 진흥왕 순수비(磨雲嶺新羅眞興王巡狩碑)』 양면 일부(판독자 : 김재홍)

40) 이성시 「제왕들의 모뉴먼트—동아시아 세계의 형성(諸王たちのモニュメント—東アジア世界の形成)」 역사학연구회(歷史學研究會) 편 『사료로부터 생각하는 세계사 20강(史料から考える世界史20講)』 이와나미 서점, 2014.

의 책봉을 받음으로써, 고유의 연호나 의복 제도를 고쳐 신하의 예를 살피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위로 당나라의 천하적 세계에 스스로를 위치지었던 것이지만, 그 실체는 단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당나라에 투항한 백제 유민(遺民) 예군(祿軍)의 묘지(678년)에는 신라왕이 "제왕을 참칭하였(僭帝)"으며, 고구려 유민을 비호하는 등 당나라에 반항적이었다는 것이 당나라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삼국사기』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신라가 고구려 왕족 안승(安勝) 등을 옛 백제 영역 내 금마저(金馬渚, 익산)에 안치하고, 신라왕이 안승을 고구려왕으로서 책봉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670년). 『삼국사기』는 안승을 책립한 주체(신라왕)의 칭호를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군 묘지가 전하고 있듯이 형식상 '제왕'이어야만 했다.⁴¹⁾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 신라는 671년부터 676년까지 당나라와의 전투를 전개해나갔는데, 고구려 유민을 내부에 포섭하면서 당나라와 교전하는 사태는 신라의 자기 보존을 위한 전투이자 자기의 세계를 막아내기 위한 행위 그 자체였다.⁴²⁾ 하지만 신라의 제왕으로서의 입장은 당나라와의 교전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6세기 초엽 이래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 의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6세기 이전 왕으로서 즉위했던 세 성(석, 박, 김)의 시조가 알에서부터 출생했다거나, 시조가 하늘에서 강림하였다는 설화가 『삼국사기』에 전해지고 있는 것도, 원래부터 독자의 세계관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뒷받침한다고 말할 수 있다.

4 『삼국사기』와 『동국통감』의 세계상

오늘날 역사 이해에 따르면, 신라의 삼국통일(통일신라)은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구축한 676년을 지칭한다. 그러나 한반도 최초의 편년체 통사(通史)⁴³⁾인 『동국통감』(1485년)에서 편찬자는 평어(評語)를 통해 삼국통일은 어디까지나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이며, 당나라와의 전쟁은 신하된 자인 신라의 분수를 넘은 반역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미 통일된 뒤에는 왕이 또 자만(自滿)하여 사치하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났으며, 고구려의 배반하는 무리를 받아들이고, 백제의 옛 땅을 점거(占據)하면서 감히 당나라 군사에 항거하여, 덕을 배반하고 순리(順理)를 범하다가 큰 나라의 원수가 되어 앉아서 폄삭(貶削)을 당했으니, 몹시 부끄러운 일입니다.⁴⁴⁾

이처럼 『동국통감』의 편자인 서거정(徐居正) 등에게 신라의 대당 전쟁은 신하된 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였지만, 당시 신라가 그 전쟁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그 편린을 『삼국사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41) 고대 동아시아사 세미나(古代東アジア史ゼミナール) 「예군묘지역주(祿軍墓誌譯註)」 『사적(史滴)』 제34호, 2012.

42) 이성시 「6-8세기의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세계(六-八世紀の東アジアと東アジア世界)」 『이와나미 강좌 일본 역사(巖波講座日本歴史)』 제2권, 2014.

43)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十五世紀朝鮮の歴史敘述に關する覺書」 『덴리대학학보(天理大學學報)』 제61호, 1969, pp. 46 - 66.

44) 既一之後, 王又自滿侈心遽萌, 納高麗叛衆, 據百濟故地, 敢拒天兵, 背德犯順, 爲大邦讎, 坐見貶削, 可恥之甚也. 『동국통감』 권9, 문무왕 19년조.

바로 『삼국사기』에 서술된 신라와 당나라와의 전투 기사는 신라에 전래된 고유의 기사와 중국 측의 후세에 편찬된 사서로부터 인용 기사를 뒤섞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난해한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그 서술 또한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⁴⁵⁾ 이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편찬 당시의 입장이나 사고방식에서 신라 측에 전래된 전투 기사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중국 측의 사료를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애초에 『삼국사기』는 중국 사서로부터 대량의 외교 기사를 인용하고 있으며, 삼국의 외교는 중국 왕조의 책봉 관계를 기초로 하여 서술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인종(仁宗, 재위 1122~1146년)이 『삼국사기』 편찬을 명한 당시의 고려 사대부들의 역사 인식이며, 그들은 중국의 오경이나 사서를 통달하고 있으면서도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을 인종이 개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부식, 「진삼국사표(進三國史表)」). 이와 같은 편찬 사정에 따르면, 『삼국사기』는 이를테면 중국 중심 사관을 기초로 하면서 중국 문어문(한문)으로 서술한 자국사라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게다가 『삼국사기』 이전에 사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구삼국사(舊三國史)』라고 불리는 사서가 있었는데도, 새로운 사서 편찬을 명했다는 역사적인 배경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삼국사기』 편찬 10년 전인 1135년에는 승려 묘청(妙淸)이 고려 국왕의 호를 황제로 고치고(칭제), 독자의 연호를 세우면 고려가 천하를 통일하고 주변국을 신속시켜 금나라도 예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묘청은 평양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진압한 것이 바로 김부식이었다.⁴⁶⁾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 『구삼국사』가 있으면서도, 새롭게 사서를 편찬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래 편년체 사서였던 것을 기전체로 엮어서 보충한 것이라든가, 신라 왕족의 피를 잇는 김부식이 고구려 중심 사관으로부터 신라 중심 사관으로 고쳤다는 등의 지적이 있지만, 이와 같은 이해는 편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너무나도 빈곤한 인식이다. 오히려 그 본질을 김부식이 살았던 시대의 국내·국외(금나라의 발흥과 요나라·북송의 멸망)의 정세 격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유교적 명분론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재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찬술해야만 했던 목적이었다. 특히 동시대 묘청의 북진 주창과 반란은 당나라로부터 신라왕이 관직을 박탈당하면서까지도 당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였던 신라와 겹쳐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당나라와 신라 간의 전투 기사가 난해한 이유 중 하나는 김부식의 명분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라 측이 남긴 군사 관련 사료의 양상에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5 고려의 세계상

그런데 묘청이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주창한 것은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다. 고려는 건국 당초 국내에서는 왕을 '짐'으로 칭하고 명령을 '제(制)'나 '조'라고 적었으며 왕도 개

45)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 『만선사 연구 상세 제2책(滿鮮史研究 上世第二冊)』 요시카와 흥문관, 1960; 이 책에는 당나라의 고구려 정벌에 관한 논문이 실려 있는데, 중국 사료와 한국 사료 사이의 차이와 모순을 지적했다. 특히 이들 사료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와 함께, 어쩌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46) 이 문제와 관련해 김부식과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이기동 「『삼국사기』 해제」 『동국사학』 48, 2010에 가장 상세히 연구되어 있다.

성(開城)을 '황도(皇都)'라고 칭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주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971년)는 광종(光宗, 재위 949~975년)의 명령을 "황제 폐하가 조칙을 내려 이르시길(皇帝陛下詔曰)"이라고 적고 있기도 하다.⁴⁷⁾

또 이와 같은 고려의 자세를 지탱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독자의 세계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단군신화이다. 승려 일연(一然)이 편찬한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삼국의 건국 이전에 앞서 단군왕검(檀君王儉)을 그 첫머리에 내세우고 있다. 그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

『고기(古記)』에 따르면, 옛날 환인(桓因, 제석천)에 환웅(桓雄)이라는 서자(庶子)가 있어, 하늘 아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여, 종자를 데리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내려와 인간 세상을 통치하였다. 어느 날 호랑이와 곰이 인간이 되고자 기도하였으므로, 환웅은 두 마리에게 썩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피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21일째에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지만, 호랑이는 금기하지 못하고 인간이 되지 못하였다. 여자의 몸이 된 곰은 더욱이 신단수 아래에서 임신하기를 기도하였다. 그러자 환웅은 변신하여 곰과 결혼하고 웅녀(熊女)는 단군(檀君)을 낳았다. 단군은 중국 요(堯) 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해에 평양을 도읍으로 삼고, 조선이라고 칭했다. 그 후 도읍을 백악산(白岳山)의 아사달(阿斯達)로 옮겨 150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주나라 무왕(武王)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하였기에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또 아사달로 숨어 산신이 되었다(의역).⁴⁸⁾

『삼국유사』는 13세기 말에 편찬되었으므로, 이 단군신화도 13세기 고려 시대의 산물이라고 이해되어왔다.⁴⁹⁾ 이 시대는 고려가 몽골로부터 유린당했을 때이며, 따라서 단군신화가 저항정신의 기반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성행했던 불교나 도교의 사상적인 영향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와 거의 동시기에 쓰인 이승휴(李承休)의 『제왕운기(帝王韻記)』에는 『본기(本紀)』라는 책이 인용되어 있다. 이 책은 『삼국유사』가 인용하고 있는 『고기』와 같은 계열의 사료인데, 여기에는 "시라(尸羅, 신라), 고례(古禮, 고구려), 남북옥저와 동북부여, 예(穢), 맥(貊)은 모두 단군의 영역이다(尸羅高禮南北沃沮東北扶餘穢與貊, 皆檀君之壽也)."라고 적혀 있으며, 단군왕검의 지배영역이 한반도 전역에 미쳤다고 전하고 있다.

단군신화를 기록한 『고기』나 『본기』가 언제 작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문헌 고증에 따르면 적어도 11세기까지 소급된다는 것은 틀림없다.⁵⁰⁾ 어쨌든 단군신화가 자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적 세계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며, 이로부터 여러 부족의 통합을 당위로 삼는 세계관과 이들 위에서 군림하는 위대한 제왕으로서의 단군왕검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다.⁵¹⁾

예로부터 한반도의 각 왕조는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 왕조로부터 책봉을 받아 그 신하가 되었으면서도, 반복해서 독자적인 세계관을 견지하고 있었다. 즉 고려가 군주의 아호

47)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 『몽골 제국의 패권과 조선반도(モンゴル帝國の覇權と朝鮮半島)』 야마가와 출판사, 2011.

48) 역자주 : 『삼국유사』 권1, 기이(奇異) 제1 「고조선왕검조선(古朝鮮王儉朝鮮)」.

49) 이마니시 류(今西龍) 「단군고(檀君考)」 이마니시 류 유저(遺著) 『조선고사 연구(朝鮮古史の研究)』 국서관행회(國書刊行會), 1970.

50) 다나카 도시아키(田中俊明) 「단군신화의 역사성을 둘러싸고--사료비판의 재검토」 『월간 한국문화』 4-6, 1982.

51) 이성시 「조선 신화의 세계(朝鮮神話の世界)」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 편 『조선의 역사와 문화(朝鮮의歷史と文化)』 방송대학교육진흥회(放送大學教育振興會), 1996.

(雅號)로서 '해동천자(海東天子)'를 칭한 것처럼, 자신들의 군주도 또한 중국의 황제와 같이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은 천자이며, 동시에 중국 황제가 군림하는 천하와는 다른 동방의 천하를 통치한다는 다원적인 천하관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⁵²⁾

6 근대 조선의 세계상

2009년 한국 학계에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다.⁵³⁾ '통일신라'라는 역사 표현은 전근대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근대의 발명이라는 지적에 대한 것이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의 '신라통일'은 『삼국사기』에서 언급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668년)을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신라의 토벌을 기도한 당나라와의 전쟁을 거쳐 신라가 당나라 세력을 구축한 676년을 기점으로 하는, 이를테면 '2단계 통일론'에 입각해 있다. 이 논리에서는 『삼국사기』나 『동국통감』에는 보이지 않는 '민족'에 의한 주체적인 통일론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전근대에는 확인할 수 없는 676년을 기점으로 하는 '통일신라론'의 역사상의 기원은 일본인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의 『조선사(朝鮮史)』(1892년)에서 찾을 수 있다.⁵⁴⁾ 대한제국 시기에 이를 번역한 김택영(金澤榮)과 현채(玄采) 등의 교과서를 통해서 근대 한국에 수용되었다. 이후 1920-30년대를 거쳐 한국 지식인들은 신라통일을 민족 형성의 획기적 시기로 이해하게 되었고, 고구려, 백제 멸망 후의 신라에 의한 당나라 군대의 구축은 민족 형성과 민족 문화의 연원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온 다이스케의 통일신라론에는 한반도로부터 청나라의 세력을 배제하고자 한 동시대 근대일본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근대적인 국가 질서로부터 종전의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華夷秩序)를 상대화하고, 이 질서를 뛰어넘으려 시도했던 근대 일본의 세계관과 국가관으로부터 탄생했던 것이다.

뜻밖에도 '통일신라'를 둘러싼 논쟁은 신라인의 세계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린 고려와 조선 왕조 지식인의 세계관, 이러한 세계관을 파괴한 근대 일본인과 이를 주체적으로 계승 혹은 비판한 현대 한국 지식인의 세계관(세계상)이라는 겹겹이 축적된 세계관의 전환을 밝혀내게 되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실령 역사 표상이 바뀌게 된 계기가 근대 일본인의 사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일신라'의 창출은 근대 한국인들의 주체적인 영위(營爲)로 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근대 국민국가의 민족과 문화의 창출기에 국가를 상실했던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기도한 창조적인 국가 담론의 시작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성시)

52) 모리히라 마사히코, 앞의 책, 2011.

53) 김흥규 「통일신라 담론은 식민사학의 발명인가 : 식민주의 특권화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창작과 비평』 제145호(37권 3호), 2009.

54) 윤선대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황종연 편 『신라의 발견』 동국대학출판부, 2008; 윤선대 「'통일신라론'을 다시 말한다 : 김흥규의 비판에 대한 반론」 『창작과 비평』 제146호(37권 4호), 2009.

IV 베트남

10세기 독립 초기부터 '베트남' 왕조는 중국에 조공하고 책봉 받는 한편, 적어도 딘 보 린(Đinh Bộ Lĩnh, 丁部領, 재위 966?~979년) 정권 이후에는 줄곧 독자의 황제호와 연호, 관아(官衙) 및 관직, 국가 의례의 체계, 통화(通貨, 주로 원형에 사각으로 구멍 뚫린 동전)⁵⁵⁾ 등을 가진 제국이하고자 하였다.⁵⁶⁾ 이 장의 목표는 19세기까지 존속한 베트남 왕조 국가에서 '북국(北國)'(중화 제국)과 대등한 남쪽의 중화라는 주장이 어떠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형성되고 표출되었는지를 국호 및 역사와 신화, '천하'관 등을 통해서 논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근대로부터 본 (비역사적인) 전통'이 아니라, 베트남 왕조 국가가 형성된 중세의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중시한다.⁵⁷⁾

1 국호가 나타내는 것

지금의 북부 베트남, 당나라 시대의 교주(交州)에 10세기에 성립한 국가는 가장 처음 황제를 자칭한 딘 보 린 이후, 18세기까지 자국을 '대월'이라고 칭했다(이 사이 중국으로부터는 송나라 대에는 교지(交趾·交趾), 1174년 이후부터 청나라 중기까지 안남(安南)이라고 불린다). 종래에는 『대월사기전서(大越史記全書)』에 따라 딘 보 린의 국호는 '대구월(大瞿越)'였고, 대월은 리(Lý, 李) 왕조(1009~1226년)의 타인 똥(Thánh Tông, 聖宗)이 1054년부터 국호로 삼았다고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딘 보 린의 도읍지인 호아 르(Hoa Lư, 華閭)나 리 왕조가 1010년에 건설한 탕 롱(Thăng Long, 昇龍, 현재 하노이)에서 '대월국군성전(大越國軍城碑)'이라고 새겨진 벽돌이 다수 발견되어 있어 처음부터 대월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크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찌놈(chu' nôm, 字喃) '꼬(cò, 瞿)'를 사용한 구어적인 표현인 '구월' 또한 사용되었던 것 같다('대구월'은 아마도 이것을 오해하여 '대(大)'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석문에는 같은 의미의 '거월(巨越)'(1107년 「천복사홍종(天福寺洪鐘)」), '거월(鉅越)'(1159년 「거월국태위이공석비명서(鉅越國太尉李公石碑銘序)」) 등의 표현도 확인된다. 쨌(Trần, 陳) 왕조(1226~1400년) 이후에는 '황월(皇越)'이라는 표현도 여기저기서 확인되므로, 국호의 핵은 '비엣(Việt, 越)'이고, 여기에 다양한 수식어를 부가하는 것이 원래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월이라는 국호는 '월(이라는 지역 혹은 사람들)의 대표'라는 특정한 지역성과 족류성(族類性, ethnicity)을 나타낸다. 탕 롱 유적에서 출토된 '대월국가가제삼제용단태평 4년(大越國李家第三帝龍端太平四年)'(1057년)이 새겨진 타일이나, 금석문에서 보이는 '황월진조제육제(皇越陳朝第六帝)'(1335년 「마애기공비(磨崖紀功碑)」) 등의 표현은 '월'(대월,

55) 역자주 : 예를 들어 홍 득(Hồng Đức, 洪德) 연간(1470~1497) 발행된 홍덕통보(洪德通寶)나 까인 흥(Cảnh Hưng, 景興) 연간(1740~1787) 발행된 경흥영보(景興永寶), 경흥거보(景興巨寶) 등이 있다.

56) 모모키 시로 『중세 대월국가의 성립과 변용(中世大越國家の成立と變容)』 오사카대학출판회(大阪大學出版會) 2011.

57) 이하의 내용에 관한 논문으로는 모모키 시로 「근세 베트남 왕조의 '우리나라'(近世ベトナム王朝にとっての「わが國」)」 本村汎(모토무라 히로시)·응우옌 주이 중(Nguyen Duy Dung)·후루타 모토오(古田元夫) 편, 『일본·베트남 관계를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日本・ベトナム關係を學ぶ人のために)』 세계사상사(世界思想社), 2000, pp. 18 - 39; 모모키 시로 「베트남 왕조 국가의 '국토', '역사', '전통'(ベトナム王朝國家の「國土」「歴史」「傳統」)」 『역사평론(歴史評論)』 제659호, 2005, pp. 19 - 33 등이 있다.

황월)이라는 일관적인 국호를 가진 국가 속에서 왕조 교체가 일어났다는 논리를 나타낸다. 중국에서 '대'나 '황'을 붙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의 왕조명인 것과는 대조적인 논리이다. 그런데 쩌 왕조 말기에 정권을 잡은 호 꾸이 리(Hồ Quý Ly, 胡季犛)는 주자(朱子)를 비판하며 자신을 주공(周公)에 비유하는 한편, 쩌 왕조를 찬탈하고 나서는 국호를 '대우(大虞)'로 고쳤다. 요 임금의 섭정으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은 우순(虞舜)을 의식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도읍지를 타인 호아(Thanh Hóa, 淸化)의 서부로 옮긴 호(Hồ, 胡) 왕조는 이전까지의 대월과는 상당히 다른 국가를 목표로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겨우 7년 만에 명나라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우라는 국호가 중화 세계의 정통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며, 동시에 특정한 족류성을 나타내지 않는 점은 의식할 필요가 있다.

명나라로부터 독립한 레(Lê, 黎) 왕조(전기 1428~1528년, 중흥 1532~1789년)에 의해 '대월'이라는 국호는 다시금 부활했다. 한편 대월 왕조 국가의 최전성기를 구가한 레 타인 똥(재위 1460~1497)은 '천남동주(天南洞主)'로 자칭하였다. 이 시대의 제도나 시문 등을 모은 서적이 『천남여가집(天南餘暇集)』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중화 세계의 천하의 남반(南半)'을 의미하는 '천남'이라는 호칭도 확인할 수 있다. 도쿠가와 막부의 외교 서간집인 『외번통서(外蕃通書)』(제12책)에도 광남국(廣南國) 응우옌(Nguyễn, 阮) 씨 정권의 창시자인 응우옌 호앙(Nguyễn Hoàng, 阮潢)이 일본 상인에게 준 '천남국대위서국공, 객상을 타이르는 편지(天南國大尉瑞國公, 客商に曉示せるの書)'가 2점 수록되어 있다.

16세기부터 대월은 분열 시대에 들어선다. 쩌(Trịnh, 鄭) 씨 정권(1592~1786년) 지배 아래의 북부에서는 대월의 국호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상국(上國)', 중국의 영토를 '내지(內地)'라고 부르며, 자국을 안남이라고 부르는 표현법이 정착해 갔다. 명목상으로는 하노이의 레 왕조의 지배권을 인정하고 있던 베트남 중남부 응우옌 씨 정권(1558~1777년)에서는 17세기 말부터 자신의 정권을 대월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다만 일본이나 타이와의 외교에는 '안남'을 썼다),⁵⁸⁾ 1710년에는 국새(國璽) '대월국완주영진지보(大越國阮主永鎮之寶)' 등을 만들었다. 이 지점에서는 대월(자칭) 대 안남(중국으로부터의 타칭)이라는 대비가 중남부 대 북부라는 대비로 치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응우옌 씨의 핏줄을 이으며, 북쪽으로 진격하여 '남북일통(南北一統)'을 실현한 응우옌 왕조(1802~1945년)는 단순히 대월의 후계자가 아니었다.⁵⁹⁾ 응우옌 왕조의 창시자인 응우옌 폭 아인(Nguyễn Phúc Ánh, 阮福映)은 1802년 떠이 선(Tây Sơn, 西山) 왕조(1778~1802)를 멸망시킨 뒤 '남월국장완복영(南越國長阮福映)'이라는 이름으로 청나라에 책봉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나라는 남월이라는 국호는 광둥이나 광서를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거부하면서, 어순을 뒤바꾼 '월남(越南)'이라는 국호로 책봉했다. 응우옌 왕조도 이를 받아들였기에 드디어 국호의 자칭과 타칭이 일치하게 되었다. 다만 요시카미 마사토(吉開將人)가 발견한 청나라 군기처(軍機處)의 기록인 군기처록부주첩(軍機處錄副奏摺)에 따르면 응우옌 폭 아인은

58) 역자주 : 이러한 표현은 응우옌 씨의 변신(邊臣)이 조선에 보낸 자문(咨文)에서도 나타난다. 1687년에 지금 베트남의 호이 안(Hội An, 會安)에 표류했던 김태항(金泰瑬)을 비롯한 21인은 현지에서 명덕후(明德侯)의 도움을 받고, 이듬해 중국 절강(浙江) 상인의 배를 빌려 귀국할 수 있었다. 이때 명덕후가 조선에 보낸 자문이 제주 목사를 역임한 송정규(宋廷奎, 재임 1704~1706년)가 편찬한 『해외문견록(海外聞見錄)』에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도 자신을 '안남명덕후오(安南明德侯吳)'라고 소개하고 있다.

59) 중국 역대 왕조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야마모토 다츠로(山本達郎) 『베트남 중국 관계사—곡(khúc, 曲) 씨의 대두에서부터 청불전쟁까지(ベトナム中國關係史—曲氏の擡頭から淸佛戦争まで)』 야마카와 출판사, 1975가 기본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남월을 받아들이지 않은 청나라의 의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교지(북부 베트남)는 송나라 때부터 안남이라고 칭해왔고, 그 강역은 환주(驩州, 현재의 응에 안(Nghê An, 乂安), 하 띵(Hà Tĩnh, 河靜) 성 일대)의 횡산(橫山)에 이를 뿐, 역대 딘, 레(=전레 왕조), 리, 쩐 왕조는 모두 월상(越裳)과 진랍을 영유한 적은 없습니다. 제 선조가 남방에 건국하여 겨우 월상과 진랍(眞臘)을 아울러 별도로 하나의 나라로 만들고, 순화(順化)에 도읍하였습니다. 순화는 옛 월상(주나라 대의 남방에서 조공했다고 여겨진다)의 땅입니다. 전적(典籍)을 살펴보면 월상은 교지의 남쪽에 있었기에 이에 남월이라고 국호를 정한 것입니다. (중략) 동서의 이월(二粵, 광둥과 광서)은 백월(百粵)의 월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칭하고자 하는 남월은 월상의 월이므로 천조(天朝)의 봉역(封域)과는 실제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천조의 의심은 필요 없는 일입니다.⁶⁰⁾

응우옌 왕조의 정사인 『대남식록(大南寔錄)』에는 1798년 5월 단계에서 적국 떠이선 왕조가 "남월을 다 가지고 있다(奄有)."라고 적은 기사도 있다. 응우옌 왕조가 남월을 칭한 것은 한나라 때 광둥을 영유했고 13세기 이후에는 베트남 연대기가 정통 군주로 이해해 온 쩐에우(Triệu, 趙) 씨의 남월(기원전 204?~기원전 111년)⁶¹⁾을 의식했다기보다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남북 베트남을 칭하는 단어로써 사용된 '남월'과 '북월' 중에서 전자에 가까운 의미로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⁶²⁾

1838년이 되자 응우옌 왕조는 중국에게는 비밀로 국호를 '대남(大南)'으로 고쳤다. 다시 자칭과 중화 세계로부터의 타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부활한 것이다. 개칭의 이유에 대한 민 망(Minh Mạng, 明命, 재위 1820~1841) 황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응우옌 씨는 월상이라는 땅을 영유했으므로 '대월'이라고 국호를 정했지만, 이는 안남(북부 베트남)의 별칭으로 대월과는 다르다. 그런데 응우옌 왕조 '대월남(大越南)' 또한 사서에서 '대월'의 호칭을 답습하고 있으므로, 무지한 자들이 안남 = 대월이라고 혼동하여 곤란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대남'이라는 약칭(略稱)을 사용한다. '대월남'은 앞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다시는 '대월'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의역).⁶³⁾

60) 역자주 : 交趾自宋以來稱爲安南, 而其疆界盡於驩州之橫山, 歷丁黎李陳, 皆未有越裳眞臘之地. 逮小番先世建國于南, 遂併有越裳眞臘, 別成一國, 都于順化. 即古越裳之地也. 稽諸簡典, 越裳在交趾之南, 因以南越爲號. (중략) 且東西二粵, 乃百粵之粵, 本國所稱之南越, 蓋越裳之地, 與天朝封域, 實有區別, 而無嫌疑. 「품첩원건(稟帖原件)」 일부(「군기처록부주첩」 중국 제1역사당안관(第一歷史檔案館) 소장. No. 7766 - 31).

61) 응우옌 왕조의 세계상에 관해서는 근대에서부터 그 전제가 되는 '전통사회'를 고찰한 타입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내셔널리즘이나 베트남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은 Woodside, Alexander B., *Vietnam and the Chinese Model: a Comparative Study of Vietnamese and Chinese Government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Cambridge (Ma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1988); 쓰보이 요시하루(坪井善明) 「베트남 응우옌 왕조(1802~1945)의 세계관(ヴェトナム阮朝(一八〇二—一九四五)の世界観)」 『국가학회잡지(國家學會雜誌)』 제96호(9·10), 1983, pp. 149 - 165 등이 있다.

62) 요시카이 마사토(吉開將人) 「『월남』 국호 문제 재고 : 군기처 부록 주첩에 보이는 응우옌 폭 아인(『越南』國號問題再考 : 軍機處錄副奏摺に見る阮福映)」 동남아시아학회 제85회 연구대회발표(東南アジア學會第八五研究大會發表), 2011년 6월 11일,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역자주 : 군기처 부록 주첩에 관해서는 요시카이 마사토 '남월국장' 응우옌 폭 아인 - 청대 당안으로 본 응우옌 폭 아인의 책봉 문제-(『南越國長』阮福映 - 清代檔案から見た阮福映の冊封問題 -)」 『사봉(史朋)』 40호, 2007, pp. 59 - 77; 요시카이 마사토 「에도 시대 표류민과 '안남국왕' 응우옌 폭 아인(江戸時代漂流民と「安南國王」阮福映)」 호소다 노리아키(細田典明) 편 『여행과 교류-여행으로 본 세계와 역사(旅と交流-旅からみる世界と歴史)』, 홋카이도대학 출판회(北海道大學出版会). 2015도 참조할 것.

63) 『대남식록』 정편(正編) 제2기(紀), 명명(明命) 19년 3월조.

그 결과로서 '월'이라는 지역성 혹은 한족(漢族)과 다른 족류성은 방기되고 '중화 세계의 남방(의 제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만이, '동방' 혹은 '대동(大東)'이라는 한반도 국가의 호칭과 같은 의미로서, 표출하게 되었다. 응우옌 왕조의 지배자들이 '중국인'을 '명향(明香)'⁶⁴이나 '청인(淸人)' 등으로 부르며 자민족을 '한인', '한민(漢民)'이라고 부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 제국의 신화와 역사

광동을 본거지로 하며 930년대에는 북부 베트남 지배를 시도한 유씨(劉氏)의 '남한(南韓)'도 917~918년에는 대월이라고 자칭했다. 광주(廣州)와 교주는 당나라 이전부터 영남(嶺南) 수읍(首邑)의 지위를 둘러싸고 다투고 있었으며 '오대십국' 시대에도 '월(이 경우에는 광동과 광서, 그리고 북부 베트남을 포함한 지역)'의 대표 자리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송나라가 남중국을 통일하자 '남중국의 반(半) 독립국가(10국이 아닌 11국?) 중 하나'라는 북부 베트남 국가의 노선은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도리어 '중화 세계 남반을 지배하는 제국'이라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신화와 역사가 구축되어 갔다. 980년과 1076년 송나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송나라군과 대월군이 대치하고 있던 전장에서 "남국의 산과 강에는 남제(南帝)가 있다. (북쪽의 중국과 남쪽의 대월이) 구별되고 나뉜 것은 천서(天書)에 적혀있다."라고 말하는 신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⁶⁵ 1427년 말 명나라의 지배를 뿌리치고 독립을 달성한 레 러이(Lê Lợi, 黎利)의 참모 응우옌 짜이(Nguyễn Trãi, 阮廌)가 작성한 독립선언 「평오대고(平吳大誥)」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 대월의 나라는 진실로 문명 국가이다. 산천의 봉역(封域)이 다르듯이 풍속 또한 남북이 다르다. 쩌에우, 단, 리, 쩌 쩌가 우리나라를 일으켰을 때부터 중국의 한, 당, 송, 원나라들과 나란히 살고, 각기 제국을 이루어 왔다.⁶⁶

여기에는 대월이 "중화 세계의 일원이기는 하지만(文獻之邦), 독자의 영역(山川之封域), 문화(風俗), 왕조의 역사(趙丁李陳)를 가지며, 북(중국)과 동등히(各帝一方) 자립한 존재인 남국"이라는 자의식이 나타나 있다. 후루타 모토오(古田元夫)는 이를 '남국의식(南國意識)'이라고 부르며 전근대 베트남의 국가 의식의 확립이라고 간주했다.⁶⁷ 초기 왕조는 주로 불

64) 역자주 : 명향은 '명나라의 향화(香火)를 유지한다'라는 의미이며, 명나라 유민이 만든 집락을 '명향사(明香社)'라고 하였다. 응우옌 왕조는 '명향(明鄉)'이라는 호적을 만들고, 청나라 중국인(북객 혹은 북인)과 구별하고 베트남인으로 간주했다. '향'과 '鄉'은 hương으로 같은 발음이다. 진형화(陳荊和) 「회안 명향사에 관한 제문제(會安明香社に關する諸問題について)」『아시아 경제(アジア經濟)』 11(5), 1970, pp. 79 - 92.

65) 역자주 : 一夜,軍士忽於張將軍祠中, 聞高聲曰, 「南國山河南帝居, 截然分定在天書, 如何逆虜來侵犯, 汝等行看取敗虛」(『대월사기전서』(上) p. 249). 출처는 진형화 편집·교정(編校) 『대월사기전서 : 교합본(大越史記全書 : 校合本)』 상·중·하(上·中·下),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부속 동양학문헌 센터(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附屬東洋學文獻センター), 1984~1986를 참조했다. 다른 표점본으로는 손효(孫曉) 『대월사기전서 : 표점교감본(大越史記全書 : 標點校勘本)』 서남사범대학출판사(西南師範大學出版社)-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2015도 있다.

66) 역자주 : 惟我大越之國, 實為文獻之邦. 山川之封域既殊, 南北之風俗亦異. 自趙, 丁, 李, 陳之肇造, 我國與漢, 唐, 宋, 元而各帝一方(『대월사기전서』(中) p. 546).

교나 민간신앙(예를 들어 용 숭배)을 통해 권위의 신성화를 노렸지만, 14세기 이후부터는 유교가 '남국' 황제의 권리를 지탱하게 되었다. 리 왕조가 1154년에 대라성(大羅城) 남문에 쌓은 원구단(圓丘壇)에서 실제로 어떤 제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호 왕조(1400~1407) 이후에는 남교단(南郊壇)으로 천지(天地)를 제사 지냈다고 한다. 이는 중국에서는 황제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 행동을 취한 것이다(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주저되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중국과 대등'한 대월은 독자적인 화이질서를 필요로 했기에 점성(占城, 참파), 진랍(캄보디아), 애뢰(哀牢, 타이·라오스계 여러 세력)을 10세기부터 번속국 혹은 조공국으로 간주해왔다. 레 왕조에 이르러서는 1485년에 '제번사신조공격국례(諸藩使臣朝貢京國例)'를 제정하고 "점성, 노과(老撾, 라오스), 섬라(暹羅, 타이), 과와(瓜哇, 자와), 만라가(滿刺加, 말라카) 등의 나라"를 모두 조공국으로 규정했다.⁶⁸⁾

이와 같은 '남국의식'은 구체적인 신화나 건국 설화, 역사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리 왕조의 상황은 단편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쩐 왕조에서는 『자치통감』 식의 논평이 들어간 통사(연대기) 형식을 만들었다고 하는 레 반 흐우(Lê Văn Hưu, 黎文休)의 『대월사기(大越史記)』(1272년 현상, 현존하지 않음), 현존 최고의 연대기인 『대월사략(大越史略)』(14세기 말이라는 통설은 잘못된 것이며, 아마도 1330년대 이전의 서적), 쩐 왕조가 봉호(封號)를 수여한 신들의 유래를 모은 리 떼 쉐옌(Lý Tế Xuyên, 李濟川)의 『월전유령집(粵甸幽靈集)』(1329년의 서문이 첨부되어 있음) 등이 편찬되었다. 참고로 어쩌서 기전체의 단대사가 아니라 편년체의 통사가 편찬되었는가는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천지창조에서부터 자신의 왕조까지의 통사 내지는 사전(史傳)을 엮는 전통이 일반적으로 존재했다. 『대월사기』의 논평은 『대월사기전서』에 "레 반 흐우가 이르기(黎文休曰)"의 형식으로 인용되어 전해진다. 예를 들어 남월의 무제(武帝), 즉 찌에우 다(Triệu Đà, 趙佗)에 대해서 '북인(北人)'이 넘볼 수 없는 월의 황제 권력을 쌓은 무제의 공적을 찬양했다.

대순(大舜)은 동이(東夷)의 사람이었지만, 오제(五帝)의 훌륭한 임금이 되었다. 문왕(文王)은 서이(西夷)의 사람이었지만 삼대(三代)의 현군이 되었다. 즉 국가를 잘 이루는 법을 아는 자는 땅이 넓은 지 좁은지 혹은 출신이 중화인지 이적인지로 구별하지 않고, 오직 덕(德)만을 보는 것이다.⁶⁹⁾

이 지점에서 중화 세계의 신화나 역사와의 비교를 통해 베트남의 신화와 역사를 논평하는 구조가 명시된다. 이후 『대월사기전서』의 편자 응오 시 리엔(Ngô Sĩ Li, 吳士連)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이를 답습했다.

이후 15세기를 거치며 신화와 건국 설화, 역사의 체계화가 진행되어, 15세기 말에는 응오 시 리엔의 『대월사기전서』(1479년 현상, 이후 18세기 말까지 증보·개정이 이어짐), 부꾸인(Vũ Quỳnh, 武瓊)과 끼에우 푸(Kiều Phú, 喬富)의 신화·전설집 『영남척괴(嶺南摭怪)』(원서는 쩐 왕조 시기에 쩐 떼 팍(Trần Thế Pháp, 陳世法)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주장) 등 오늘날에도 정통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서적들이 편찬되었다. 이들의 중핵을 이루는

67) 후루타 모토오 『베트남인 공산주의자의 민족정책사—혁명 속의 에스니시티(ベトナム人共産主義者の民族政策史—革命の中のエスニシティ)』 다이유 서점(大有書店), 1991, 서장.

68) 역자주 : 定諸藩使臣朝貢京國令. 如占城, 老撾, 暹羅, 爬哇, 刺加等國使臣……(『대월사기전서』(中) p. 726).

69) 역자주 : 黎文休曰, 遼東微箕子不能成衣冠之俗, 吳會非泰伯不能躋王霸之強. 大舜, 東夷人也, 爲五帝之英主. 文王, 西夷人也, 爲三代之賢君. 則知善爲國者, 不限地之廣狹, 人之華夷, 惟德是視也(『대월사기전서』(上) pp. 113 - 114).

「홍방씨전(鴻龐氏傳)」에 따르면, 중국의 전설상의 황제인 염제신농씨(炎帝神農氏)와 무선(婺僊), 동정군(洞庭君) 등의 핏줄을 이은 '낙용군(貉龍君)'이 '제래(帝來)'의 딸인 '구희(媼姬)'와 결혼하여 100개의 알 혹은 100명의 아들을 낳는다. 그 후 부모는 헤어지게 되고 각각 50명의 아들을 데리고 갔다. 한편 그 장남이 '웅왕(雄王)'이 되어 최초의 국가인 '반랑국(Văn Lang Quốc, 文郎國)'을 건국하여 18대가 이어졌다. 그 영역은 동으로는 바다, 북으로는 동정호(洞庭湖), 서로는 파촉(巴蜀), 남으로는 점성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바야흐로 '월'은 영남뿐만이 아니라 고대 중국의 남방에 있었던 '백월(百越)' 모두를 포함했다(『평오대고』의 '오(吳)'는 명나라의 옛 이름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춘추 시대의 월왕 구천(句踐)이 오왕 부차(夫差)를 격파한 고사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근세 고증학(考證學)은 베트남에도 영향을 끼쳤다. 18세기 북부에서는 응오 티 시(Ngô Thì Sĩ, 吳時仕)가 편찬한 『대월사기전편(大越史記前編)』과 같이 반랑국의 영역이나 홍방씨가 2622년이나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담론이 출현한다. 응오 티 시는 또 남월의 짜에우 다를 황제로 하거나 후한말 교지군(交趾郡)의 태수(太守) 사섭(士燮)을 왕으로 하는 것과 같은 남중국의 할거 정권을 정통 군주로 평가하는 썬 왕조 이래 사관에 대해서도, '광동계림(廣東桂林)⁷⁰⁾의 월'은 자신들 '교지구진(交址九眞)의 월'과는 다르다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에서 비판을 퍼붓고 있다(물론 이 응오 티 시조차 자국을 안남이라고 부른다). 중남부에서 시작된 응우옌 왕조가 『대월사기전서』를 대신하여 편찬한 『흠정월사통감강목(欽定越史通鑑綱目)』(1856년 헌상)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홍방씨의 연수(年數)를 적지 않고, 반랑국의 영역으로 이해되어 온 '십오부(十五部)'에 대해서도 당시 베트남 영역 내에 비정하는 설을 소개했다. 짜에우 다는 '왕', 사섭은 단순한 한나라의 군수(郡守)로서 취급한다. 또 응우옌 왕조는 본기에 해당하는 『대남식록』과 『대남열전(大南列傳)』(이를 합치면 기전체가 된다), 제도사인 『대남회전사례(大南會典事例)』, 지리서인 『대남일통지(大南一統志)』 등을 잇따라 편찬하여 '대월'과는 다른, 즉 북부가 아니라 순광(順廣)을 옛땅으로 삼는 국체(國體)의 정당화를 위해 노력했다.

3 천하의 의미

대제국의 주변 국가가 '탈제국'을 시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소제국'과 '프로토 국민국가'라는 두 가지 방향성이 나타난다. 동아시아 혹은 중화 세계는 예전부터 두 가지 방향성이 이리저리 뒤섞인 모습이 선명하게 표출되는 공간이다. 이른 시기에 '남중국의 할거 정권'의 길을 틀어막은 '베트남' 왕조 국가는 한반도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배자의 칭호나 연호 등에 대해서는 일본 못지않게 명백하게 독자적인 황제권을 주장하는 독특한 길을 걸었다. 여기서 주장되는 정통성을 공간으로 파악한다면, '천남'이나 '대남'의 국호나 홍방씨의 건국 설화에 나타나는 '중화 세계의 남조(南朝)'나 영남~북부 베트남의 소제국 등 상당한 폭이 확인된다.

그런데 중국사 연구에서 '천하'가 중화 세계 전체를 지칭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의

70) 역자주 : 『사기』 권113, 「남월열전」에 따르면 "진나라 때 천하를 아우르고, 양월을 공략하여 평정한 뒤 계림, 남해, 상군을 두었다(秦時已并天下, 略定楊越, 置桂林, 南海, 象郡)." 또 『대월사기전서』는 이들을 각각 광서 명귀현(明貴縣), 광동, 안남(=북부 베트남)으로 비정하고 있다(『대월사기전서』(上), p. 102).

중국 영역을 지칭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중화 세계 남쪽의 지배자라는 자기주장에도 불구하고, 천하는 베트남 전국을 지칭했으며 중외(中外)나 내외, 해내(海內) 등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여겨진다. 『대월사기전서』에는 "천하의 여러 세례를 정했다(定天下諸稅例)." (1013), "천하 인민의 소송은 모두 개황왕(開皇王)에게 위임하여 재결하여 황제에 보고하게 하였다(詔今後凡天下人民詞訟, 悉委開皇王裁決以聞)." (1040), "천하의 문학이 있는 자를 시험하여, 한림원의 관리로 채웠다(試天下有文學者, 充翰林院官)." (1086), "천하를 정해 열두로(路)로 삼았다(定天下爲十二路)." (1242), "천하의 판도를 정했다(定天下版圖)." (1490) 등 행정적인 기록이 적혀 있으며, 태조 레 러이는 명나라를 격퇴했을 때 "천하를 혼일했다(混一天下)." (1428), "백 번의 전투를 통해 천하를 얻었다(以百戰得天下)." (1428)라고 표현했다.⁷¹⁾ 모두 천하가 베트남을 의미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현실의 영역에 입각한 '천하의 판도'와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제왕의 기를 가져 중국인이 손을 댈 수가 없는" 풍수적 국토관⁷²⁾을 결부시킨다면, 근세 북부 베트남에는 프로토 국민국가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천하 = 국토 의식이 성립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1390년에 맹렬하게 대월을 공격한 점성 왕 쩌 봉 응아(Chế Bồng Nga, 制蓬萊)가 전사했을 때, 그 목을 앞에 둔 쩌 왕 조 응에 동(Nghệ Tông, 藝宗, 당시에는 상황)은 "나와 봉 응아는 서로 대립한지 오래되었다. 오늘 이렇게 서로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어찌 한나라의 황조(皇祖)가 항우의 목을 보는 것과 다르겠느냐. 이것으로 천하는 평정되었다."라고 말했다.⁷³⁾ 이는 당시의 대월이 점성을 '천하를 이분(二分)하는 강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근세에 영토로 편입된 중부 이남의 공간은 북부 측에서 보자면 어디까지나 '복종하지 않는 변경(邊境)'에 불과했지만, 위와 같은 응우옌 씨에 의해 북부와는 다른 국가로 인식되었다(순광 외에 가정(嘉定) = 진랍도 지배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이것 자체가 제국성을 가진다).⁷⁴⁾ 응우옌 씨는 1701년에 독자적인 지도를 작성하였으며, 1744년에는 처음으로 독자의 왕호를 사용한 응우옌 폭 코앗(Nguyễn Phúc Khoát, 阮福瀾)은 "우리나라는 오주(烏州, 순화의 아칭)에서 시작되었다." (『대남식록전편』)라고 적고 있다(다만 레 왕조 황제를 부정하지는 않고, 또 연호도 계속해서 사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찰해보면, 응우옌 폭 아인이 떠이 선 왕조를 멸망시킨 직후인 1802년 6월에 "천하는 평정된 참(天下初定)" (『대남식록』)이라는 표현도 천하 = 베트남 일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복수의 국가를 포함한 월의 세계'라고 이해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남북의 차이, 일국적 천하관과 복수의 국가를 포함한 제국적 천하관의 병존 등을 품으면서, 응우옌 왕조의 베트남은 '근대 세계'

71) 역자주 : 『대월사기전서』 (上) p. 210; p. 229; p. 251; p. 331; (中) p. 736; p. 550; p. 551.

72) 모모키 시로, 앞의 논문, 2005년 『중세대월국의 성립과 변용』 제 4장 등에서 소개했다. 14세기에 그 원형이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용맥이 이어져 만들어진 국토"라는 관념은 근대 내셔널리즘의 토대가 되는 지리적 상상력을 논한 통차이 위니짜쿤(Thongchai Winichakul)의 지리체(Geo-Body)라는 개념(『지도가 만든 타이—국민국가탄생의 역사(地圖がつくったタイ—國民國家誕生の歴史)』 이시이 요네오(石井米雄) 옮김, 아카시 서점(明石書店), 2003)의, 근세판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73) 역자주 : 上皇曰, 我與蓬萊相持久矣, 今日始得相見, 何異漢高祖見項羽首, 天下定矣(『대월사기전서』 (上) p. 464).

74) 남북으로 길고 가느다란 국토의 지리적·역사문화적 다양성에 관해서는 "토지로는 전혀 통합되어 있지 않는 국토"라는 형태로 인문지리학의 피에르 구르(Pierre Gourou)가 이미 논했다. Gourou, Pierre, *Les Paysans du delta tonkinois, étude de géographie humaine*. Paris et la Haye: Mouton & Co., 1936.

에 편입되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프랑스의 침략을 허락하는 '약점'이 되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의 서로 다른 방식의 항불(抗佛)·항미(抗美) 전쟁'이나 '지역적·민족적 다양성을 살린 도이 머이(đổi mới)' 등의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⁷⁵⁾

(모모키 시로)

75) 단일국가의 직선적인 역사가 아닌 베트남의 역사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모키 시로 「복수형의 베트남사, 닫히지 않은 베트남사—20세기에 쓰는 베트남사와 21세기에 쓰는 베트남사(複數形のベトナム史、閉じないベトナム史—20世紀に書くベトナム史と21世紀に書くベトナム史)」 아키타 시게루·모모키 시로 편 『역사학의 프론티어—지역에서 되묻는 국민국가 사관(歴史學のフロンティア—地域から問い直す國民國家史觀)』 오사카대학출판회, 2008, pp. 191 - 212도 참조할 것.